

수도권 마약매매·투약 131명 검거...15명은 미성년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 19명 구속 수도권서 'SNS·던지기'로 매매 미성년자 알면서도 마약 제공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사팔팔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국제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마약은 판매자들을 통해 미성년자들에게까지 뻗어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조직폭력배인 A씨 등 마약류 매매·투

약 사범 131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19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32)씨 등 판매자 39명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태국 등을 통해 들여온 각종 마약류(필로폰·합성대마·대마·LSD)를 던지기 수법이나 대면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 공급책 두 명은 국제특급우편(EMS)으로 마약을 식료품으로 위장한 채 들여오거나, 태국에 직접 가 숙곳에 숨겨오는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검거 당시 16세였던 B(18)양 등 매수·투약자 92명은 A씨 등에게 얻은 마약류를 수도권 일대 숙박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미성년자들은 주로 서울, 경기도에서 거주하던 이들로 총 15명이다. 이들 중 4명은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고, 나머지는 자퇴한 상태였다. 이들은 SNS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 마약사범이

나 친구들을 통해 마약을 접하게 됐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호기심이나 주변 친구들과 권유로 마약을 접했다가 중독돼 투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 장소로는 숙박업소가 가장 많았고, 마약을 제공한 성인의 집이나 자취하던 곳에서도 투약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미성년임을 알면서도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은 17명으로 20~50대 성인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2021년 4월에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필로폰을 제공하는 성인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미성년자와 성인을 특정한 뒤, 이들과 연결된 이들

을 추가로 특정하면서 동남아시아 등을 통한 마약류 공급 일당을 검거했다. 이후 지난 2021년 5월부터 최근까지 131명을 전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필로폰 600g과 대마·엑스터시·야 등 마약류 1.5kg을 압수했는데, 이는 시가 20억원어치에 달한다. 범죄수익금 약 10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은 중독성이 생겨 끊기가 어렵고, 힘겹게 끊어도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며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이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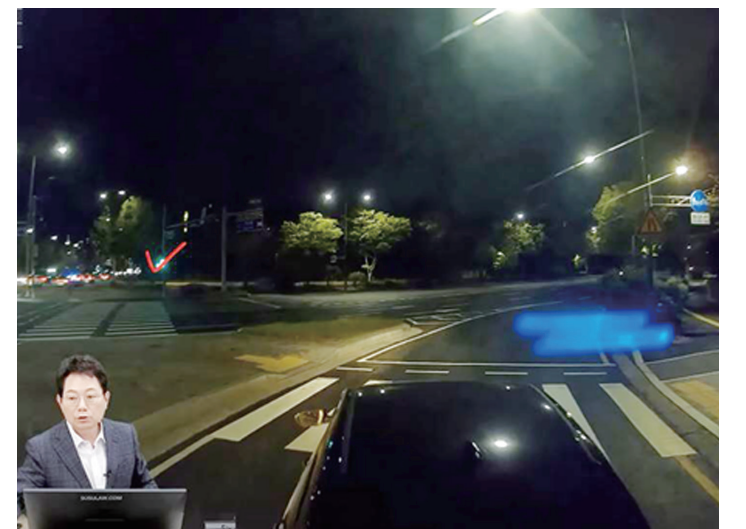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퍼포먼스
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6일 오전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 달구벌대중 앞에서 대구환경운동연합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

'우회전 일시정지' 지킨 차 추돌...“내 잘못 아냐”

한문철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멈춰야”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정지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 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25톤 탱크로리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우회전을 하기 위해 교통섬 오른쪽 길로 들어섰다. A씨 앞에는 우회전을 하려던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고, A씨는 경적을 울리며 앞 차를 재촉했다. 이어 교통섬 왼쪽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켜지자 승용차는 신호등이 없는 오른쪽 횡단보도 앞에서 잠시 정차했다. 하지만 A씨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앞 차를 그대로 추돌했다.



A씨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차하는 것이 맞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지나쳐도 되지 않느냐"며 "경찰에서는 나를 가해자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A씨의 보험사는 그의 과실을 70으로, 승용차 운전자 측 보험사는 그의 과실

을 100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 변호사는 "한쪽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까지 가로질러) 뛰어가는 경우가 있다"며 "만약에 대비해 멈추는 것이 옳다"고 A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앞 차량이 급제동한 것도 아니다. 승용차 운전자를 칭찬해 줘야 한다"며 "앞 차를 재촉하지 말고 잠시 서서 좌우를 살피고 지나가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 2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이에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22일부터는 해당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김재환기자

오월어머니집 관장 성희룡한 5·18부상자회원 송치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에게 성적 모욕 메시지를 보낸 공범단체 5·18부상자회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2)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4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공포를 유발하는 메시지를 김 관장에게 각 10여 차례, 30여 차례 반복적으로 전송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언젠 중도 찾기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김 관장이 여러 사람이 있는 방에 사진과 관련된 좋지 않은 글을 공유했다. 이후 몇 차례 통화·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돼 이러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선욱기자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탈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운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